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과 연대를 위하여



민유기  
교수·사학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 백신 접종률이 70~80퍼센트에 도달한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로 점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으나, 감염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백신 보급률이 낮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지구촌의 백신 불평등 해소 노력이 시급함을, 지구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과 연대가 중요함을 새삼 일깨운다.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은 20세기 중반에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카슨(R. Carson)이 1962년에 출간한 <침묵의 봄>은 성장에 따른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살충제와 제초제 남용이 봄날 새들의 노래를 사라지게 하고 자연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과육을 불러온다는 책의 내용은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으켰다. 1968년에 결성되어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인류의 위기를 논의한 지식인 모임 로마클럽은 1972년에 <성장의 한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 파국을 경고하며 환경보호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양립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세계 각지에서 60년대 내내 권위주의적 기성 질서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은 1968년에 정점에 도달했다. 젠더, 환경, 평화, 소수자 인권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68운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 했던 일종의 '문화혁명'이었다.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신사회운동을 통해 68세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추구했다.

유엔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개최로 처음 환경문제를 논의한 이래 인류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주도했다.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2015년 유엔총회는 2030년까지 달성할 지구촌의 실천 목표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의제'를 마련했다.

(사진=엔스플래쉬)

“  
나와 내 주변에서 시작되는 작은 SDGs의 실천과 연대는 삶의 공간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했다.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려 '리우회의'로 지칭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2012년에 다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회의 20년의 성과를 확인하는, '리우+20 정상회의'로 지칭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가 개최되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선언문과 '녹색경제' 의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2015년 유엔총회는 2030년까지 달성할 지구촌의 실천 목표로 SDGs '2030 의제'를 마련했다.

한국은 시대적 조류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했고, 2018년에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2020년에는 K-SDGs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 4대 전략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SDGs 실천을 크게 후퇴시켰다. 전 지구적 미래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보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국중심주의 입장이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총회 특별행사로 9월에 뉴욕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회의(SDGs Moment)는 SDGs가 지속가능 회복을 위한 노력에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며 팬데믹 극복과 SDGs 실천을 연결했다. BTS가 보건의 위기로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린 미래의 주역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얘기한 이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백신 생산 증가를 통한 팬데믹 대응의 불평등 해소,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 회복과 조세 및 금융 개혁, 양성평등, 기후 행동과 전쟁 종식 등을 강조했다. 연설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 세대 간 공존의 지혜

모이기 등 네 가지 글로벌 대응을 강조했다.

새해의 시작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22년은 <침묵의 봄> 출간 60주년, <성장의 한계> 출간 50주년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다. 삶의 방식에 비대면 활동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예상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중시되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의 중요성도 더욱 중시될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세계화가 확산하며 등장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와 내 주변에서 시작되는 작은 SDGs의 실천과 연대는 동네, 도시, 국가, 국제지역, 지구촌이라는 삶의 공간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BTS는 노래 가사처럼 "추락하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기 때 문에" 막연한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 SDGs 실천과 연대는 코로나19가 날개를 앓아가 추락하게 만든 인류 문명이 큰 충격을 입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하게 도와 줄 것이다.